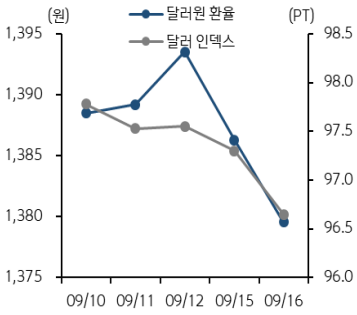
Daily
FX Economist View

2025-09-17

잊혀졌던 연준의 세번째 책무

외환시장



FX Talk : 금일 1,377~1,384원 전망

동향 어제 달러·원 환율은 9월 들어 가장 낮은 1,386.1원에 개장해 내리막을 타며 3시 30분에 1,378.9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종가가 1,380원을 밑돈 것은 7월 25일 이후 처음입니다. 미·중간 작은 합의(TikTok) 및 스티브 미란 이사의 상원 청문회 통과 소식에 달러화가 광범위하게 하락하며 달러·원도 반응했습니다. 새벽 2시는 1,379.5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망 간밤 역외 최종 호가 감안시 오늘 달러·원 환율은 1,379원 부근에 개장한 뒤 어제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며 좁은 폭에 갇힐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 3시(한국시각) FOMC 결과를 앞두고 시장 참가자들이 포지션을 가볍게 할 시점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세력들에 큰 장이 서기 직전의 고요함이 오늘 하루의 숙명입니다.

전망치	예상 레인지	
	저점	고점
달러원	1377	1384
달러엔	146.1	146.9
유로달러	1.182	1.190

FX Insight : 잊혀졌던 연준의 세번째 책무

잊혀졌던 연준의 세 번째 책무가 스티븐 미란의 상원 청문회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977년 연방준비법 개정으로 추가된 "적절한 장기 이자율 유지"가 그것입니다. 기존의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보완해 연준의 역할을 확장한 것입니다.

1970년대는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직면했던 시기입니다. 고물가와 높은 실업률이 동시 발생해 기존의 이론과 정책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침체가 심화되어 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반대로 고용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적절한 장기 이자율 유지"라는 세 번째 책무를 추가함으로써 연준이 단기적 경기 변동 뿐 아니라 장기적 경제 안정을 위해 정책을 펼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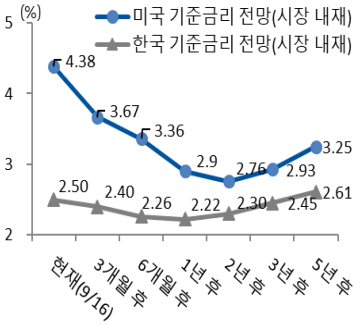
차기 연준 의장 인선 및 스티브 미란 연준 이사 임명으로 연준의 정치화가 논란입니다. 연준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원칙인데, 최근의 상황은 이러한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연준의 통화정책을 공개 비판하며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스티븐 미란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며, 정부의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인물들로 연준을 채우려 합니다. 아울러 잊혀진 장기 금리 관련 책무가 소환된 것은 정책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위험을 높입니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는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띨 수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흔히 집권당에 불리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압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1970년대 아서 번즈 체제의 연준이 그러했습니다.

연준의 정치화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신뢰를 잃게 되어, 통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의식해 무리하게 금리를 인하할 경우 훗날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위험이 있죠. 결국 연준의 정치화는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미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Key Chart

< 시장 가격에 내재된 한·미 기준금리 전망 >



Economist 백석현
seokhyun100@shinhan.com
02-2151-2632

서울 외환시장

(단위 : 원)

구분	달러/원	위안/원
시가	1,386.1	194.7
고가	1,387.8	194.7
저가	1,378.1	193.9
종가[1)]	1,378.9	193.9
전일비	-10.1	-1.1
평균환율	1,382.3	194.3
NDF(1M)	1,376.5	
거래량	207(억불)	312(억위안)

1) 서울외환시장 3시 30분 종가

주요 통화 환율

통화	환율	전일비
USD/KRW	1,379.55	-14.00
JPY/KRW	941.78	1.67
EUR/KRW	1,636.51	2.03
GBP/KRW	1,882.03	-2.53
AUD/KRW	922.12	-2.28
CAD/KRW	1,003.97	-1.93
USD/JPY	146.48	-0.92
EUR/USD	1.1867	0.0106

금리 장외파생상품 (원화)

(단위 : %)

만기	IRS	전일비	CRS[2)]	전일비
1Y	2.388	-0.002	1.925	-0.03
2Y	2.352	-0.015	1.870	-0.01
3Y	2.380	-0.017	1.930	-0.01
4Y	2.429	-0.018	1.990	-0.01
5Y	2.474	-0.015	2.045	-0.01
7Y	2.550	-0.012	2.060	-0.02
10Y	2.632	-0.013	2.035	-0.03

2) 3개월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3개월물과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

기준 금리 및 채권금리 (원화)

구분	종가	전일비
CD 91일물	2.56	+0.02
통안 1년	2.19	-0.00
통안 2년	2.38	-0.03
국고채 3년	2.41	-0.03
국고채 5년	2.56	-0.02
국고채 10년	2.80	-0.02
국고채선물(3년)	107.38	+0.02

단기 FX Swap Point (원화)

(단위 : 전)

만기	SWAP Point	전일비	Implied CRS
1M	-240	-20.00	2.09%
3M	-655	0.00	2.10%
6M	-1,350	36.00	1.90%
1Y	-2,370	-125.00	1.88%

금리 장외파생상품 (미국)

(단위 : %)

만기	국채	전일비	IRS[3)]	전일비
1Y	3.61	-0.043	3.59	-0.020
2Y	3.50	-0.052	3.27	-0.030
3Y	3.47	-0.058	3.19	-0.026
5Y	3.58	-0.049	3.22	-0.016
10Y	4.03	-0.036	3.51	-0.006

3) 1년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1년물과 교환되는 달러 고정금리

주요 증시

증시	종가	전일비	
KOSPI	3,449.62	+42.31	+1.24%
미국 DOW	45,757.90	-125.55	-0.27%
중국 상해종합	3,861.87	+1.36	+0.04%
일본 NIKKEI 225	44,902.27	+134.15	+0.30%
영국 FTSE 100	9,195.66	-81.37	-0.88%

기타

종목	종가	전일비
WTI (선물)	64.52	+1.22
금 (선물)	3,695.50	+6.00
3M TERM SOFR	4.02	+0.00
3M EURIBOR	2.03	+0.03
KOR 5Y CDS	17.76	+0.07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